

이슈브리프 791호
(2026. 1.28)

홍해-아덴만-아프리카의 불 안보 질서 재편과 중동 분쟁의 확산: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 국가 승인

제791호

김윤희 yunheekim@inss.re.kr



국문초록

이스라엘은 유엔 회원국 가운데 최초로 소말릴란드를 독립 주권국가로 승인함으로써, 중동 분쟁의 공간적 범위가 홍해를 넘어 아프리카의 뿔과 인도양으로 구조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외교적 상징 조치를 넘어, 후티의 홍해-아덴만 상업선 공격, 이란의 해상 네트워크, 그리고 가자 전쟁 이후 심화한 이스라엘의 안보·외교 환경 변화가 결합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이스라엘은 후티의 지속적인 해상 공격과 이란의 지원 구조가 단기간 내 제거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홍해-바브엘만데브-인도양을 하나의 연속된 작전 공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방 정보·정찰·해상안보 거점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소말릴란드는 아프리카의 뿔 북서부 해안에서 홍해 입구와 인도양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지니고 있으며 해상 교통로 통제, 조기경보 체계 구축, 항만·군사 인프라 운용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 인정을 아브라함 협정의 연장선으로 제시하며 가자 전쟁 이후 약화 된 외교 공간을 아프리카로 확장하고 새로운 친이스라엘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외교적 목적도 병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스라엘의 결정이 아프리카의 뿔을 중동 경쟁의 외연 전장이자 대리전 공간으로 전환할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음을 지적한다. 항만·군사기지·안보 협력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소말릴란드는 후티, 알사바브, 이란, 걸프 국가, 튀르키예, 서방국가, 이스라엘의 이해가 중첩되는 전략적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후티-알사바브 연계로 대표되는 비국가 무장세력 네트워크는 홍해, 아덴만, 아프리카의 뿔, 인도양을 연결하는 다층 위협 구조를 형성하며, 해상 공격, 드론·미사일 타격, 지상 테러, 해적 활동이 결합 된 복합 안보 환경을 고착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국가의 해군·공군·치안 역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위기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는 아프리카 연합과 지역 기구를 중심으로 유지되어 온 기존의 지역 안보 질서를 약화하고, 영토 보전 원칙과 분쟁 중재 메커니즘에 새로운 부담을 가하고 있다. 아프리카 내부 분쟁은 중동 행위자들의 개입이 결합하면서 더욱 조직화·군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홍해 연안의 불안정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홍해-인도양 해역은 단순한 해상 통로를 넘어,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가 얽힌 복합 전략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 수출입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수에즈-홍해-아덴만-인도양 항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사안은 군사·외교 이슈를 넘어 경제 안보 차원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홍해-아프리카의 뿔-인도양을 하나의 연속된 전략 공간으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 해상 위협 관리 및 정보공유 체계 강화, 연안국 협력 확대, 그리고 민관 통합 공급망 대응 구조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한국형 홍해-인도양 전략 수립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주제어 : 이스라엘, 소말릴란드, 아프리카의 뿔, 홍해, 인도양

2025년 12월 26일,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와 기드온 사르 외무장관은 공식 선언을 통해 소말릴란드를 독립 주권국가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엔 회원국 중 최초로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사례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인정이 아브라함 협정의 정신에 맞으며, 양국 간 농업·보건·기술·경제 분야 협력과 지역 안정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소말릴란드의 압디라흐만 모하메드 압둘라히 대통령 역시 이를 역사적 순간이자 지역 및 글로벌 평화를 향한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하며 양국 간 번영과 안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은 국제사회에서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소말리아 연방정부는 이를 자국 영토와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했고 아프리카연합(AU)은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였다. 아랍연맹 사무총장 아흐메드 아블게이트는 이 조치를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이자 국가 통합과 주권 원칙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하였다. 이슬람협력기구(OIC)와 알제리, 이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 20여 개국 외무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단호한 태도를 밝히고 아프리카의 빨과 역외 평화 및 안보에 미칠 심각한 파장을 경고하였다.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 국가 인정은 중동 문제가 아프리카의 빨, 홍해, 그리고 인도양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후티의 홍해 공격, △아프리카의 빨에서의 대리전 경쟁, △연안국들의 영토 갈등이 상호 연결된 안보 위협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동 이슈들은 더 이상 역내 문제에 머물지 않고 아프리카 안보와 글로벌 공급망을 동시에 뒤흔드는 구조적 위협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 주권국가 인정: 전략적 배경과 동기

이스라엘이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데에는 안보 및 외교적 목적이 있다. 안보적 목적으로는 후티와 이란 견제를 위한 홍해-인도양 거점 확보다. 2023년 이후 후티가 홍해와 아덴만에서 상업선을 반복적으로 공격했을 당시 이스라엘은 △항만, △수출입, △에너지·해운 안전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속적 지원 속에서 후티를 완벽히 제거하기 어려웠기에 홍해-바브엘만데브-인도양을 직접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군사 및 경찰 거점이 필요했다. 아프리카의 빨의 북서부 해안선을 통제하는 소말릴란드는 후티 해상 활동과 이란의 해상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위협을 조기에 탐지·요격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가자 전쟁 후 직면한 국제적 고립을 완화하고 아브라함 협정의 지리적 범위를 확장하려는 목적도 있다. 가자 전쟁 장기화로 이스라엘은 유엔 및 각종 국제기구에서 강한 비판과 압박을 받았다.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및 對이스라엘 제재를 논의하는 등 외교 공간이 좁아졌다. 이에 네타냐후 정부는 아프리카를 새로운 외교 무대로 삼아 대사관 재개설과 관계 복원을 추진했다. 한편 소말릴란드 인정을 아브라함 협정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동아프리카까지 포괄하는 親이스라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는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의 빨까지 이어지는 정치 및 안보 블록 형성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안보와 외교적 성과를 토대로 네타냐후 정부는 가자 전쟁 이후 위기에 놓인 국내 정치적 정당성 회복을 역시 기대하고 있다.

소말릴란드의 지정학적 의미와 중동 분쟁의 아프리카 확산

이스라엘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소말릴란드와의 외교 수립을

넘어 중동 분쟁이 아프리카의 뿔과 홍해-인도양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후티의 홍해 해상 공격, △국제 해운·에너지 안보 위기, 그리고 △아프리카의 뿔에서 전개되는 항만·군사기지·대리전 경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또한 소말릴란드가 이러한 변화의 지리적 그리고 전략적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소말릴란드 위치〉



출처: Encyclopedia Britannica, n.d.

소말릴란드는 소말리아 북서부에서 홍해 입구 인근 해안선을 관리하며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인도양으로 연결되는 해상로를 측면에 자리 잡고 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핵심 병목지점으로 전 세계 해상 무역과 에너지 수송의 상당 부분이 이 해역을 통과한다. 후티 공격 이후 선박 통행과 수에즈 운하 이용이 매우 감소한 상황에서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인접 해역의

안보 관리는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 소말릴란드는 지정학적으로 △해상 교통로 통제, △정보·정찰 우위, △내륙 연결 거점 확보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전략 지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또한 후티, 알샤바브, 걸프국, 이란, 튀르키예, 서방국, 이스라엘 등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가 중첩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국가들이 소말릴란드 인근 연안국의 항만과 기지에 장기적인 군사 및 경제 거점을 구축하려 하면서 아프리카의 뿔이 사실상 중동 경쟁의 외연이자 대리전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지부티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내 정치와 영토 분쟁 문제에 중동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아프리카 내부 분쟁이 지금보다도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앞으로 아프리카의 안보 환경은 이전보다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분쟁의 강도나 무력 수준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아프리카 역내 갈등은 내부 정치 또는 지역 차원의 무력 충돌에 그쳤다. 하지만 중동 국가들이 아프리카 분쟁에 무기, 자금, 그리고 군사훈련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한다면 그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알샤바브 같은 비국가 무장 세력도 정교한 무기와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되어 단순한 테러가 아닌 훨씬 고도화된 군사 행동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가 스스로 구축해 온 지역 안보 질서와 중재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연합과 동아프리카 정부간개발기구(IGAD) 같은 지역 기구는 ‘아프리카 문제는 아프리카가 해결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나름의 분쟁 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다. 만일 중동 영향력 국들이 홍해와 인접해 있는 소말리아, 수단, 에리트레아, 그리고 에티오피아와 각각 양자 군사협정, 항만·기지 계약, 안보 지원을 체결한다면 향후 아프리카연합 또는 동아프리카정부간개발기구의 중재력은 지금보다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는 난민 또는 해상치안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국가의 치안·해군 역량이 중동 분쟁 대응에 소진되면서 해적, 밀수, 불법 어업 같은 범죄가 다시 심각해질 수 있다.

후티-알샤바브 연계와 비국가 무장세력 네트워크

비국가 무장세력 네트워크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후티와 알샤바브는 홍해-인도양 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후티는 2023년 말부터 홍해와 아덴만에서 상업선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초기에는 이스라엘과 직접 연계된 선박을 중심으로 공격했지만, 점차 이스라엘 항구 방문 이력이 있거나 미국·영국과 관련 있는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등 공격 범위를 넓혔다. 또한 드론·미사일·소형 보트와 나포·억류를 결합한 복합 전술을 구사했다. 이 과정에서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수에즈를 통과하는 선박 수가 매우 감소하고 많은 선박이 희망봉으로 우회 항로를 선택하면서 운송 시간과 비용 그리고 보험료가 급등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과 일부 동맹국이 해군 작전과 공습을 통해 후티의 공격 역량을 제한했으나 이란의 지속적인 지원과 후티의 전술 전환으로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2025년 이후 후티는 상업선 공격을 줄이는 대신 이스라엘 영토와 이스라엘 연계 목표물을 겨냥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후티가 홍해와 아덴만에서 해상 통제와 전략적 공격을 담당한다면 알샤바브는 소말리아 및 인접 인도양 해역에서 △해적 활동, △지상 테러,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후티-알샤바브 연계는 세 가지 차원에서 홍해-인도양 안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첫째, 위협을 홍해에서 아덴만, 아프리카의 뿔, 그리고 인도양으로 확장 시키고 있다. 둘째, 드론, 미사일, 해적, 그리고 지상 테러를 동시에 전개하여 개별 국가의 역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反이스라엘 그리고 反미국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종파와 이념을 넘는 비국가 행위자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협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함의 및 시사점

홍해-아덴만 안보 질서는 △후티의 홍해와 아덴만 공격, △후티-알샤바브 협력 심화, △이란·걸프 국가·이스라엘 등의 개입이 겹치면서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가 얽힌 다층적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번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 국가 승인에는 명확한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정보·정찰·해상안보 거점으로 삼아 홍해-바브엘만데브-인도양을 하나의 작전 공간으로 통합 관리하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후티-이란 네트워크에 대한 조기 경보와 해상 감시 능력을 높이고 홍해-아덴만에서 이스라엘 선박과 연계 물류망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반대로 소말릴란드는 국제적 국가 승인을 얻는 대신 중동 대리전과 비국가 무장세력의 활동 무대가 되는 위험을 떠안았다. 더하여 소말리아 연방정부, 알샤바브, 그리고 親소말리아 정치세력의 반발로 테러와 내부 분쟁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졌다. 아프리카 역내 안보 측면에서도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지해 온 식민 경계 불가침과 영토보전 원칙에 균열을 내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소말릴란드는 디팩토(de facto) 국가이지만 아프리카연합은 분리주의와 영토 분쟁의 연쇄 촉발 가능성을 우려해 지금까지 소말릴란드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스라엘, UAE, 튀르키예, 이란 그리고 걸프 국가들이 저마다 서로 다른 아프리카 정부 및 지역 무장 세력과 △항만, △군사기지, △안보 협력을 시도해 오면서 아프리카의 빨과 홍해 연안은 점차 중동 세력 간 경쟁이 전개되는

외연 전장이자 대리전 무대로 굳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

홍해-아덴만 안보 질서 변화와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 국가 승인은 우리에게도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특히 경제 안보 측면에서 한국 수출입 물량의 상당 부분이 수에즈-홍해-아덴만-인도양 항로를 통해 이동하는 만큼 후티-알샤바브 위협을 포함한 위협들은 심각한 연쇄 효과를 일으킨다. 이는 운송 시간 증가, 우회 항로 사용, 그리고 운임·보험료 급등이 누적되면 에너지와 원자재 전반의 비용 상승과 공급망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청해부대 파견과 민관 협의 등을 통해 홍해-아덴만 리스크에 대응해 왔으나 이 해역을 더욱 경제 안보의 핵심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유, △상황인식, △해상 위협 평가, △우회 항로 설계 지원 등 비전투 영역에서의 기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동시에 조선·해운·보험·물류 기업과 상설 민관 협의체를 구축해 홍해-수에즈 리스크를 반영한 △선박 운항 계획, △대체 루트 시나리오, △비상 재고·재배치 전략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특정 해역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홍해-아프리카의 뿔-인도양을 하나의 연속된 전략 공간으로 인식하고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아프리카가 주도하는 안보와 영토보전 원칙을 존중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히면서 소말리아, 지부티, 에티오피아, 케냐 등과 같은 동아프리카 국가들과는 △연안 경비 역량 강화, △항만 보안 및 해상치안 그리고 △기후·식량·보건 분야 연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이스라엘, UAE, 사우디 등과는 △홍해-아덴만 해상안보, △에너지 공급 안정, △해양 인프라 투자와 같은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항만 보안, △해상 교통 관리 시스템, △해적·불법조업 대응 훈련, △해상보험·리스크 평가 협력 등을

아우르는 한국형 홍해-인도양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이를 통해 국내적으로는 수출입 안정과 공급망 방어라는 경제 안보 이익을 확보하고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분쟁 완화, 국제 규범 존중, 개발 협력을 중시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